

# Interview



## 〈전우치〉 최동훈 감독

“영화의 속성은 도술과 비슷하다”

국문과 출신이라 고전문학을 접할 기회가 다른 감독들보다 많았을 것 같다. 그런데 수많은 고전 중 유독 전우치전을 영화화해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였나?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야기다. 전우치가 가진 유쾌함, 약간의 한량적 기질, 도술이라는 매력적인 방식에 끌렸던 것 같다. 전우치가 흥길동처럼 자신의 대의명분에 이끌리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다.

조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든 창작 동화 〈치카차카풍〉에서 영화 〈전우치〉의 이야기를 빌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카들은 완성된 〈전우치〉를 봤는가? 봤다. 너무 좋아하면서 즐겁게 보더라. 집에 돌아가서 애들이 피리를 부르면서 놀았다고 하더라.(웃음)

그리고 보니 당신이 처음 연출하는 12세 관람가 영화다. 작성하고 관람 등급을 낮춰 만든 것인가? 그렇다. 일부러 처음부터 작성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는 욕도 없고, 크게 폭력적인 장면도 없다.

12세 관람가를 마음에 두고 대사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줬던 현란한 대사

애초에 이 영화는 이야기를 타이트하게 만들면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몇 번의 플래시백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야기 구조가 주는 재미보다 오히려 캐릭터가 주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빨'을 펼치기에는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긴 했다. 촬영 중 가끔 감정 표현이 쉽게 되지 않을 때 유해진 씨가 “아, 이럴 땐, 욕하면 되는데!” 그랬다. 그때마다 해진 씨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정중히 말했다.(웃음)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장 심한 욕은 ‘개새끼’다. 하지만 그 말도 극중 초랭이가 ‘개’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극중 전우치의 대사는 마당극 대사 톤이고, 그가 펼치는 액션은 우아한 춤극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고전 분위기를 떠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사는 고어의 아름다움과 맛을 살리는 데 신경을 썼다. 액션은 단순하손발로 싸우는 설정이 이 영화에 맞는 것 같지 않아 영화의 액션에는 절대 발을 쓰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도사들이라 보니 붙어서 싸우기보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싸우는 설정을 내세웠다.

몇몇 언론 리뷰를 살펴보니, 전작들에서 보여줬던 이야기꾼으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이번 영화에서는 볼거리에 신경 쓰느라 전보다 약간 퇴색했다는 평들이 있더라. 이런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애초에 이 영화는 이야기 구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몇 번의 플래시백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야기 구조가 주는 재미보다 오히려 캐릭터가 주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8개월 반의 긴 촬영기간은 영화에 관련된 많은 스태프들을 포함해 감독으로서도 무척 길고 험한 날들이었을 것 같다. 어떤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버텼나? 힘들었다. 이번만큼 작업량이 많은 영화를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버티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열심히 촬영하고, 촬영 마치면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 잔 마시고 노닥노닥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또 자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또 영화를 찍고, 계속 그런 일상이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 감독의 본질은 “생각하고 숙제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이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나? 물론이다. 숙제만 잘 해도 영화는 좋아진다.

그런데 그 숙제를 해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감독이라는 직업이 어려운 것 아닌가. 촬영이라는 숙제만 끝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편집은 촬영보다 더 어려웠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CG를 상정하고 했던 편집이라 더 어려웠던 것 같다. 또 이 영화는 이야기가 느슨한 것 같지만, 구조는 알게 모르게 꽤 복잡하다. 후반작업을 기차 시사 3일 전 겨우 마쳤다. 8개월 반 촬영하고 7개월 동안 후반작업을 하면서 쉰 날이 거의 보름도 안 된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 몸은 편해졌는데 심정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린 것 같은 기분이다.(웃음)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 중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다. 120억 원이라는 제작비의 무게가 감독으로서도 꽤 컸을 것 같다. 컸다.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 내가 이 영화로 망하면, 한국영화계에도 큰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찍었다.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말이다. 그래서 어떤 영화보다 스태프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찍었다. 정말 자본이 주는 공포라는 것이 있긴 있더라.

그 어떤 감독들보다 쇼트가 많은 영화를 찍는다. <범죄의 재구성> 때는 1,600 쇼트, <타짜> 때는 2,600 쇼트 정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우치>는 어느 정도였나? <전우치>는 한 4,000 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촬영도 촬영이지만 편집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다. 쇼트가 많을수록 편집할 때 좋기도 하고 장면의 리듬이 빨라지기도 한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괜찮은 장면들을 건지기도 한다. 그래서 쇼트가 많은 걸 좋아한다. 그런데 점점 그 취향이 바뀔 것 같다. 다음 영화에는 아마 쇼트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에 이어 이번에도 차량 액션 신이 등장한다. 지금껏 보여줬던 차량 액션 신 중 가장 규모도 화려하고 긴박감 넘치는 시퀀스였다. 편수가 늘어날 때마다 노하우가 확실히 느냐? 신기하게도 감독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막상 새로운 영화를 찍게 되면, 이전에 찍었던 유형의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난 영화에서는 어떻게 찍었지?” 뭐 이런 말을 하게 된다.(웃음) 결국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결과물이 업그레이드되는 이유는, 아마도 편수가 늘 때마다 규모를 키우고 이전 방법과는 다르게 찍어보는 걸 시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는 자동차 50대를 길에 깔고, 5일 동안 길을 막고

촬영했다. 무전기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미친 사자들처럼 찍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해졌을 때 몇몇 신은 정두홍 감독과 촬영감독이 한 팀을 이루어 차량 액션 신을 저쪽에서 따로 찍고, 나는 B카메라와 C카메라팀과 함께 저쪽 팀 촬영에 안 걸리게 찍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최동훈표 영화의 인장처럼 차량 액션 신을 꼭 넣을 생각인가? 글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참 차량 액션 신을 좋아한다. 운전도 소심하게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신들을 좋아하는 걸까.

현실과 다른 욕구의 발로가 아닐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웃음)

광화문, 청계천 등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한다. 로케이션 촬영 통제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본래 가장 찍고 싶었던 서울의 장소는 남대문이었었는데, 불 타버려 찍질 못했다. 진짜 허망했다. 거기서 찍으면 정말 죽었을 텐데. 만약 불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허가를 받아 거기에서 찍었을 것이다. 굳이 꼽자면 광화문보다는 청계천 장면이 찍기 어려웠다. 이틀에 걸쳐서 찍었는데,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풀러 산책하는 코스라 통제가 만만치 않았다. 급하게 통제하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촬영은 급하게 했지만, 통제는 눈치 보면서 천천히 진행했다.

전우치는 환영의 속임수를 이용한 도술에 능한 도사다. 환영의 속임수이라는 속성은 영화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일까. 마지막 액션 신이 펼쳐지는 영화 세트장에서의 액션 신도 그런 속성을 두고 감만한 장소 설정처럼 보였다. 그렇다. 나는 실은 영화가 도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도술을 부리는 사람들과 비슷한 속성을 지녔다는 생각이다. 영화라는 것 자체



내가 이 영화로 망하면, 한국영화계에도 큰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찍었다.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말이다. 그래서 어떤 영화보다 스태프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찍었다. 정말 자본이 주는 공포라는 것이 있긴 있더라.



가 일종의 거짓말을 거짓말 같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우치>에도 일부러 극중 영화 촬영 장면을 넣었고, 전우치의 도술도 마치 특수효과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끔 설정했다. 그런 속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 신을 도심에서 찍었다면 아마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웃음)

<범죄의 재구성>의 김선생, <타짜>의 정마담은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인물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이름의 존재감도 중요해서 극중 김선생은 “나, 김선생이야!”라고 말하는 신이 있고, 정마담 역시 “나, 정마담이야!”라고 강조하는 신이 있다. <전우치>의 전우치 역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인물이다. 가만히 보면 이런 인물들에 애착과 매력력을 느끼는 것 같다. 영화적으로는 그런 인물들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맞지만, 아마 일상에서 만났으면 되게 혐오하고 싫어했을 것이다.(웃음)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 주인 공다운 면모가 있는 것 같다. 뭐랄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해서 영화 속에서 계속 그리는 것이 아닐까.

사기 범죄스릴러 <범죄의 재구성>, 한국판 도박영화 <타짜>에 이어 한국형 히어로 판타지 액션물 <전우치>에 이르기까지, 늘 기존 한국 감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영화에 도전해 성공해 왔다. 차기작도 색다른 장르영화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감독은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새로운 걸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기작으로 구상하는 작품은 아마도 범죄 드라마가 될 것 같다.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도 앞서 이야기 했던 차량 액션 신을 좋아하는 심리와 비슷한 건가? 맞다. 자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교육받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범죄 드라마는 범죄 자체보다 범죄를 행하는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차기작은 조금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요즘 어떤 가를 또 털어볼까 생각 중이다.(웃음)

개봉 운이 좋은 않다. 전세계적 화제작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와 일주 차이로 개봉한다. 흥행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나? 영화는 언제나 그렇게 적들과 함께 가거나, 그 적들의 적들과 함께 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다.(웃음)

김수연 기자 | 사진 김선태